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후원미사는 18일, 12월 후원미사는 16일, 2020년 1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9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3,861,152	전월이월금	10,000
지 로	1,719,530	우리은행	3,112,000
국민은행	3,456,000	하나은행	846,000
조흥은행	85,000	신한은행	815,000
외환은행	452,500	제일은행	105,000
농 협	953,000	기업은행	205,000
우 체 국	45,000	교구보조	2,067,122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쉼터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1,8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0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3,825,000	잔액(이월금)	46,152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제105차 이민의 날 담화문

이주민과 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식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단연 '난민' 문제였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을 향하여 쏟아진 관심과 현실적인 질문과 걱정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난민'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해 왔기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난민'에 관한 문제는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런 현실이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1990년대부터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까지 '난민' 문제는 계속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을 보면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했고, 이들을 받아들이면 사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정치와 사회 이념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자기편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주민', '난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

까?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고합니까?

"비록 거기에서 당장 실질적인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알아 봐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민은 세계 특별한 과제를 줍니다. 탁월한 복음 선포자이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특별히 가장 작은 이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기 쉬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의 기쁨>, 210,209항). 교황께서 이렇게 이주민과 난민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도 헤로데의 박해를 피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떠나야만 했던 난민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가정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주민과 난민에게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황에 즉위하시자마자 람페두사의 난민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때 교황께서는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등지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자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실천 방안인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를 늘 마음에 새겨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UN에서 전 세계 164개국 동의를 얻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가 채택되었고, 교황께서는 신앙인의 실천적 사랑이 온 세계의 연대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글로벌 콤팩트를 따라 국제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난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와 연민을 가지고 함께 이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지향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프란치스코, 삼중기도, 2018.12.16.).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는 더 이상 몇몇 국가나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콤팩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신 아름다운 '연민'의 마음으로 난민과 이민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불의한 처지에 놓여 힘들어 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다가서기를 청합니다.

2019년 9월 29일,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 신 철 주교

공동체 소식



공지사항 사제 인사 발령*

10월 사제 인사 발령으로 원고삼 베드로(말씀의 선교 수도회) 신부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4년 전에는 베트남 공동체를 담당하셨는데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목활동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민의 날 소식*

매년 이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의 날 축복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일) 13시 30분에 제11회 이민의 날 축복 나눔 행사를 명동대성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1부는 유경춘 주교님 주례로 미사가 진행되었으며 제2부는 국가별 음식 나눔(필리핀, 베트남, 남미, 몽골, 중국) 제3부는 국가별 공동체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본국에서 즐겨 먹던 음식으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타지 생활에서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공연과 음식 나눔 준비에 참가한 이주민들은 개인시간을 할애하고 준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더욱 풍성하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소식*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주교들에게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는 교회, 사회의 변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연대하여 '길을 나서 사람들 곁에 들어가 동행'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에는 이주사목위원회의 담당으로 베트남 공동체 하오 신부님의 미사 집전으로 외로움과 차별 등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